

글로벌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박 충 환*

- I. 머리말
- II. 지역학과 영남학
- III. 지역학의 공간성과 영남학
- IV. 지역학의 총체성과 영남학
- V. 지역학의 인식론과 영남학
- VI. 결론

국문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행정단위를 공간적 매개로 하는 ‘자문화연구’ 지역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역학 열풍의 시기에 수많은 자문화연구 지역학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학을 지구화시대의 글로벌 문화지형과 지역학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쟁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남문화연구원 설립 후 약 20년 동안 간행된 78편의 저역서,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연구원의 학술지인 『영남학』 70호까지 게재된 논문 437편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지역학 일반의 공간성, 총체성, 인식론이라는 측면에서 고찰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조교수 / parkhanam@knu.ac.kr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학은 지역학의 공간성과 그것을 둘러싼 이론적·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결여로 인해, 지구화시대를 살아가는 영남인들의 글로벌한 삶을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전반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둘째, 연구원의 개원 당시 지향점으로 삼았던 학제적·총체적 접근을 실제 연구활동을 통해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영남문화를 매우 과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지역학적 지식생산이 수반하는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고민의 부재로 영남문화를 지나치게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재현해왔고, 그 결과 글로벌 수준의 학문적·실천적 쟁점과 연결되지 못한 채 매우 국지적이고 고립된 문제의식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영남문화연구원의 지역학적 지식생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이론적 가정과 방법론적·인식론적 관행들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영남문화연구원이 지역학 연구소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학문적·실천적 비전을 구축하고 제2의 도약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주제어

글로벌 문화지형, 영남학, 지역학, 공간성, 총체성, 인식론

I. 머리말

최근 한국 학계에서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국내 지역학은 세계화·지구화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던 1990년대에 본격적인 학문분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새천년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지역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환경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주체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전형적인 지역학으로 인식되어 온 범주로서, 연구주체가 특정 지역을 외부자로서 접근하는 ‘타지역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지역학으로 연구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자기지역연구’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전자를 ‘타문화연구’, 후자를 ‘자문화연구’로 구분한다.

국내에서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지역학의 예로 동아시아학, 동남아시아학, 유럽학, 라틴아메리카학, 아프리카학, 중국학, 일본학, 러시아학, 미국학, 인도학, 베트남학, 독일학, 프랑스학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지역학은 서울학, 경기학, 인천학, 부산학, 영남학, 대구학, 경북학, 대구경북학, 호남학, 전주학, 광주학, 목포학, 강원학, 춘천학, 군산학, 경주학, 충청학, 대전학, 청주학, 상주학 등 이루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¹⁾ 이렇게 최근 한국의 지역학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자문화연구 지역학은 단순히 전성기라는 표현만으로 담아내기 힘든 ‘열풍’ 혹은 ‘범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²⁾ 심지어 이 글

1) 이 범주의 지역학을 ‘지방학’(regional studies)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일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예를 들어 문화예술기획자 김상수(2008)는 국내 자문화연구 지역학의 지평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100개의

을 쓰는 순간에도 학자, 문화정책·기획 전문가, 지역주민, 문화운동가, 지역관료, 지역정치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어느 행정단위를 공간적 매개로 하는 새로운 이름의 지역학을 탄생시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학 열풍은 지식생산을 사회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뜯아보아야 할 매우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 연구는 국내 지역학 열풍의 시대에 수많은 자문화연구 지역학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영남학을 지구화시대의 글로벌 문화지형과 지역학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쟁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애초에 이 연구는 영남지역 대표 지역학연구소를 표방하고 출범한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측이 연구원의 정체성과 영남학의 미래 비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는 영남학 중에서도 특히 영남문화연구원이 수행해온 영남지역 연구 활동과 그 지적 생산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는 쟁점들은 단순히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학을 넘어 영남학 일반 그리고 국내 지역학 일반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추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남문화연구원과 영남학에 대한 성찰은 지난 2016년,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영남학』 제29호의 기획테마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때 발표된 6편의 기획논문³⁾은 연구원의 창립 15주년 기

학(學)을 일으켜라”고 주문하고 있다.

- 3) 황위주, 「영남문화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전망-영남문화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29호, 2016, 7-36쪽; 이상원, 「영남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29호, 2016, 71-139쪽; 우인수, 「영남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제29호, 2016, 37-69쪽; 임재해, 「영남지역 민속연구의 현단계와 바람직한 미래 구상」, 『영남학』 제29호, 2016, 142-185쪽; 한기문, 「상주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제29호, 2016, 187-225쪽; 안귀남, 「경상북도 방언 연구의 현 단계와 상주 방언의 특징」, 『영남학』 제29호, 2016, 227-284쪽.

념학술대회의 결과물로서, 영남의 문화, 역사, 문학, 민속 관련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러한 성찰이 지역학 일반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과 지식생산의 사회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영남문화연구원이 지역학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중층적 함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지는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에 이루어진 영남학과 영남문화연구원에 대한 성찰을 영남학의 사회역사적 맥락 그리고 지역학 일반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쟁점과 연결시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영남문화연구원이 간행해온 78편의 저역서, 연구원이 수행해온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연구원이 간행하는 학술지인 『영남학』 70호까지 게재된 논문 437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난 특징과 경향성에 입각해서 그동안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학이 노정해온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볼 것이다. 하지만 영남문화연구원의 정체성과 영남학의 학문적 비전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은 한 명의 연구자가 단 한 편의 논문으로 감당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좁게는 영남문화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들, 넓게는 영남학 일반과 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시론적인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II. 지역학과 영남학

영남문화연구원(이하 영문연)은 2000년 7월 “영남학이라는 지역학의 연구”⁴⁾에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자문화연구’ 지역학 연구소이다. 연구원의 웹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설립취지문에는 영남학의

공간적 지평을 넘어 “국제화의 큰 흐름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되고 종합적인 한국학”⁵⁾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그 성과물들은 영문연이 주로 영남지역 연구에 특화된 지역학 연구소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 이름의 문어적 외피만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 영문연의 정체성을 ‘영남문화를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소’로 정의하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일견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영문연의 정체성과 연구원이 추구해온 영남학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너무나 취약하고 모호해지게 된다.

영문연이 추구하는 지역학은 어떤 종류의 지역학일까? 영문연은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영남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 영남문화를 왜 그리고 어떤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통해 연구하는가? 연구원의 영남문화 연구는 어떤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지는가? ‘영문연은 영남문화를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소이다’라는 단순한 정언명제만으로는 이들 이론적·방법론적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물론 설립 당시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가 있었고, 이는 2001년 『영남학』 창간호에 네 편의 특집 논문으로 게재되었다.⁶⁾ 여기서 네 명의 원로학자는 역사학, 국문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영문연이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포괄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영문연이 수행해온 학술활동과 그 결과물들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역학 연구소로서 영문연의 정체성과 영남학의 이론적·방법론적 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들 네 편의 논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IV절의

4) http://ynculture.knu.ac.kr/bbs/content.php?co_id=intro02

5) http://ynculture.knu.ac.kr/bbs/content.php?co_id=intro02

6) 권연웅, 「영남문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영남학』 제1호, 2001, 1-24쪽; 박성봉, 「한국문화사와 영남 문화론 서설」, 『영남학』 제1호, 2001, 25-51쪽; 조동일, 「영남문화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 『영남학』 제1호, 2001, 53-76쪽; 강신표, 「영남문화 연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영남학』 제1호, 2001, 109-180쪽.

<표 1>과 <표 2> 참조).

영문연이 창립된 지 어언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학계의 이론적·방법론적 동향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과 학계의 이론적 동향이 급격하게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연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역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고, 연구대상인 영남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할 것이며, 영남학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논쟁과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문연의 정체성과 영남학의 학문적·실천적 비전은 창립 20주년을 앞둔 현시점까지도 여전히 모호하고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역학 연구소로서 영문연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영문연이 직면해 있는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문제는 단순하고 용이한 해법을 찾거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과제이다. 하지만 영문연이 명실상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진지한 논쟁과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의 논의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영문연의 영남학을 지역학 일반을 규정하는 사회역사적 차원과 지식-권력의 문제 그리고 지역학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쟁점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켜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학은 '지구상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지리, 환경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⁷⁾ 영문연의 관련 연구자들 또한 영남학을 지역학으로 규정할 때 이와 대

7) Khosrowjah, Hossein, "A Brief History of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Arab Studies Quarterly*, 33, 2011, pp. 131-142; Szanton, David L.(ed.), "Introduction: the origin, nature, and challenges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in David Szanton(ed),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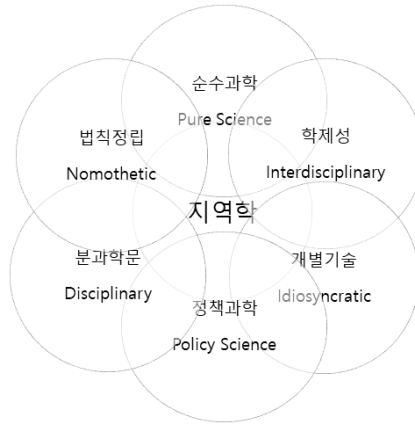
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지식체계가 그러하듯 지역학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학은 그 학문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지식체계보다 더 그것이 출현하고 작동하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존재론적·인식론적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 경험이 있는 유럽 제국과 일본의 경우 매우 오래된 지역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지역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거나 완전히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내용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⁸⁾

하지만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출현하는 개별 지역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의 수많은 판본들을 관통하는 학문적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중 특히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지역학 일반이 수반하는 매우 다루기 힘든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문제이다. 지역학의 이러한 고질적 문제는 그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 쌍의 양립 불가능한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첫째, 지역학은 순수과학(pure science)이면서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학은 개별기술적(idiosyncratic) 학문임과 동시에 법칙정립적(nomothetic) 학문이기도 하다. 셋째, 지역학은 학제적·다학문적·총체적 접근을 지향하지만 실제 연구는 대부분 분과학문의 편협한 전문성 속에 갇혀 있다(<그림 1>을 보라). 지역학은 이들 세 쌍의 이중성에서 비롯되는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딜레마로 인해 명확한 정의가 불가능하고, 고유한 이론과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으며, 분과학문 이기주의와 그것이 출현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굴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⁹⁾

8) 김경일,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1998, 17쪽.

9) 김경일, 앞의 글; 조기숙,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는

<그림 1> 지역학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딜레마



지역학의 학문적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처음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초창기 지역학의 지적 전통은 18-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 시대에 형성되었다. 초기의 지역학적 지식추구는 서구인들이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조우하게 된 ‘문화적 타자(cultural others)’, 즉 비서구인들의 언어, 문화, 종교, 사회·정치·경제조직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당시 비서구 문화적 타자에 대한 서구인들의 지적 호기심은 대중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지식 추구를 넘어 체계적인 이론적·방법론적 틀에 입각해서 수행되는 전문적인 학술활동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 제12집, 1998, 7-34쪽; 황성우,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지역’ 개념에 대한 단상」, 『Russia & Russian Federation』 1(1), 2010, 36-40쪽; Ludden, David, “Area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vol. 6, 2000, pp. 1-22; Smith, Neil, “Remapping Area Knowledge: Beyond Global/Local,” in Terence Wesley-Smith and Jon Goss(eds), *Remaking Area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across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p. 24-40.

근대적인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인류학과 지리학(특히 인문지리)이다. 초창기 인류학자와 지리학자들은 주로 비서구 지역에서 조우한 낯선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본질적 원리를 밝히려고 했다. 바로 이러한 학문적 관행이 지역학의 ‘타지역연구’ 혹은 ‘타문화연구’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초창기 비서구 문화집단에 대한 지식추구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식민권력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학적 지식 추구는 연구자의 순수한 학술적 의도와 상관없이 정책과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었다. 즉 서구의 식민권력은 식민지의 효과적이고 지배와 착취를 위해 식민지에 관한 지역학적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식민모국의 이러한 정책적 필요는 지역학을 둘러싼 지식-권력 체계가 구축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다.¹⁰⁾ 따라서 지역학은 “성립 과정에서부터 가치와 실천의 문제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지향”¹¹⁾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학적 전통은 그 태동기부터 유럽 제국 식민권력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확정편향에 의해 심각하게 굴절되어 있었다.

지역학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대학과 연구소를 매개로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분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¹²⁾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냉전체제 하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역들을 블록화했다. 미국은 그렇게 임의적이

10) 이로 인해 지역학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류학은 한동안 ‘제국주의의 시녀’(maiden of imperialism)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11) 김경일, 앞의 글, 41쪽.

12) 물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적성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학자 루스 베니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이다(Benedict, 1946).

고 자의적으로 블록화한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블록을 단위로 한 지역학적 지식의 축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를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학은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학술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 세심하고도 전략적으로 기획된다”¹³⁾ 지식-권력 체계의 일부로서 정부의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¹⁴⁾ 이렇게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매개로 제도화된 지역학적 지식체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문화적 헤게모니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¹⁵⁾의 지역학에도 이론적·방법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국내 타문화연구 지역학의 지형도가 대체로 미국의 지역학에서 설정된 지역 블록이나 국가들을 단위로 그려지게 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미국 지역학의 강한 정책과학적 성격은 순수과학으로서의 지역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부응했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었던 풍부한 재정은 지역학 연구의 양적 팽창을 담보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 활발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역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정밀한 이론, 방법론, 인식론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 지역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논쟁과 그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별기술적 학문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이다. 제국주의적 팽창기의 전통적 지역학은 고전학, 고고학, 역사학, 언어

13) Khosrowjah, 앞의 글, 132쪽.

14) Ludden, 앞의 글, 1-2쪽; 김정일, 앞의 글; 김정일,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5(3), 1996, 223-266쪽; Katzenstein, Peter J., “Area and Region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4), 2001, pp. 789-791.

15) 이들 지역은 90년대 이후 지구화가 확산되면서 타지역에 대한 지역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문화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의 필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학, 종교학, 인류학, 지리학 등 주로 개별기술적 성격이 강한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지역학의 미국적 맥락으로 인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법칙정립적 성격이 강한 사회과학분야가 지역학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래된 개별기술적 전통과 새로운 법칙정립적 정향 사이에 활발한 논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학문적으로 훨씬 더 체계화되고 정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 두 진영의 고유한 학문체계는 결코 쉽게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적·방법론적 프레임 하에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인문학 진영에서는 양적 방법론을 사회과학 진영에서는 현지조사와 질적 방법론을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도의 다소 절충주의적인 타협이 느슨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두 진영 간의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역학의 중요한 논쟁으로 지속되고 있다.¹⁶⁾

미국의 지역학에서 진행된 또 다른 논쟁은 첫 번째 논쟁과 일부 겹쳐 지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총체론과 학제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이다. 지역학적 지식은 특정 지역에 대한 총체적 기술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학이 대학에서 하나의 분리된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학 연구자들은 대부분,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어문학 등 특정한 분과학문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연구한다. 이로 인해 지역학의 총체성은 아무리 여러 분과학문을 인위적으로 끌어모아 놓아도 기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학은 끊임없이 학제적 종합을 통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 기획은 항상 일정 정도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게 된다.

셋째, 미국의 지역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논쟁은 타 지역 혹은 타문화 연구에만 편향되어 있는 지역학적 시선의 일방향성이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지역학은 서구적 주체에 의해 대상화된 비서구

16) Ludden, 앞의 글.

를 타자로서 연구하는 전통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서구는 '우리'가 되고 비서구는 '그들'이 되었으며, 이 우리와 그들은 문명-야만, 현대-전통, 문화-자연, 물질-정신이라는 근대주의적 이분법과 겹쳐져 비서구를 매우 왜곡된 시선으로 표상하는 '재현의 정치'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1980-90년대 이른바 서구학계에서 전개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과 '재현의 위기' 그리고 구미 학계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탈식민 국가 출신 연구자들의 비판적 연구를 통해 지역학의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해체주의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도 지역학의 범주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류학 진영 내에서 일찍부터 주창되어온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지역학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학을 둘러싼 권력-지식 체계에 대한 해체주의적 비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학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식론적 감수성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자리잡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책과학과 순수과학 두 측면 모두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국의 지역학은 1990년대에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지구화연구'(global studies)¹⁷⁾라는 새로운 학문적 조류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게 된다. 지구화연구는 문자 그대로 지구화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물질적·상징적 질서를 이해해야 할 시대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지구화는 전통적인 지역학을 가능하게 했던 블록화된 지역이나 국민국가 혹은 그 하위 지역을 주어진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더 이상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탈냉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즉 기존의 지방, 국민국가, 지역, 세 개의 세계(제 1세계, 2세계, 3

17) 여기서는 'global'을 '지구화'로 번역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이 용어를 그냥 '글로벌'이라는 외래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논의에서 'global'과 'local'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이들 용어를 '지구', '세계', '전체', '지역', '지방', '국지' 중 하나로 통일해서 번역·사용하게 되면 원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거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맥상 필요할 때 두 용어를 적절하게 번역해서 사용하거나 그냥 외래어로 가져와 '글로벌'과 '로컬'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세계)를 구획했던 경계를 넘어 자본, 상품, 문화, 노동의 급속한 흐름이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면서,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상상 가능하고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서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간적 근접성과 물리적 빈도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장소로서의 지역 자체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¹⁸⁾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경계넘기와 경계허물기로 인해 세계체제의 내부와 외부 간 구별이 무의미하고 무용해진 상황에서 뚜렷한 경계로 블록화된 지역을 매개로 생산되는 전통적인 지역학적 지식은 그 의미를 많은 부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지구화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방식으로 지역 혹은 로컬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이른바 지방화 혹은 로컬화가 글로벌화 과정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독특한 문화적 지형을 구성하게 된다. 사회학자 롤랑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은 이러한 로컬적인 것과 글로벌적인 것의 복잡한 겹쳐짐과 뒤섞임을 포착하기 위해 ‘보편화와 특수화의 동시성 혹은 공존’을 뜻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ion), 즉 ‘세방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¹⁹⁾ 이러한 글로컬리제이션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지구적인 수준의 문화적 지형을 이른바 ‘글로컬 문화지형’이라 부른다. 인류학자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지구화로 인해 새롭게 구성된 “글로벌 문화경제는 기존의 중심부-주변부 모델(심지어 다중심과 다주변부를 고려하는 모델도)로는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이접적인 질서

18)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Inda, Jonathan X. and Renato Rosaldo, “Introduction: A World in Motion”, in Jonathan X. Inda and Renato Rosaldo (eds.),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 Reader*, Blackwell Publishing, 2002, pp. 1-36;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9) Robertson, Roland,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and Roland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pp. 25-44.

로 이해되어야 한다”²⁰⁾고 주장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유동하면서 형성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문화지형을 포착하는 데 폐쇄적인 물리적 공간론에 입각한 기존의 지역학적 프레임은 설득력을 대부분 잃게 된다.

한국의 지역학은 바로 미국과 유럽 학계에서 지역학이 지구화연구로 대체되는 시기에 짝을 띄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역학은 미국 지역학의 대체적인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지역학이 미국의 지역학과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지역학이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진화해왔듯이 한국의 지역학은 1990년대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서 명백한 특수성을 보여준다.

한국 지역학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사회역사적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1988년 올림픽의 개최로 그동안 절대빈곤의 극복에 몰두하던 한국이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외교적 필요에서, 그리고 한국의 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타문화에 대한 지역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를 넘기며 미국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결정적인 변곡점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으로 빨려들어 간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힘들이 국가를 통해 매개되지 않은 채 바로 지역사회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로컬의 생존과 정체성 정립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문화연구 지역학의 열풍은 지자체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구조적 변화에 적응해서 각 지역사회에 외부투자를 유도하

20) Appadurai, Arjun,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Theory, Culture and Society* 7, 1990, pp. 295-310, 296쪽; 또한 Friedman, Jonathan, *Cultural Identity and Global Proces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를 보라.

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로컬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전략을 실천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²¹⁾

1990년대는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폭압적 확산에 맞서 “로컬 운동, 혹은 로컬 사회를 구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이 지배에 대한 저항의 주요한 표현으로 등장”²²⁾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흥미롭게도 지방자치화와 맞물려 더욱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경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한국의 지역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싹을 틔웠다. 즉 한편으로는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이 조우한 타사회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고, 동시에 글로벌화로 인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서구와 중앙의 헤게모니 문화의 물결에 대응해서 지방과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서는 타문화연구 지역학과 자문화연구 지역학이 거의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학에 대한 개념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 지역학, 지역연구, 지방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는 학문은 영어의 area studies, regional studies, regional sciences 등의 번역어로서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심지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성격이 매우 다른 ‘regional sciences’를 1983년에 창립된 한국지역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학’으로 번역사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²³⁾ 김학훈이 말하는 지역학은 “선형계획법, 투입-산출기법, 계량경제모형뿐 아니라 경제지리학에서 발전시킨 중력모형, 중심지이론, 경제기반 이론 등도 채용하였다. 그리고 신고전적 입지이론, 토지이용 및 교통 모형, 지역간 인구이동, 주택 및 도시문제, 지역 경제

21) 김경일(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김학훈,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2014, 87-103쪽; 조기숙, 앞의 글.

22) 아리프 딜러, 「로컬적인 것 속의 글로벌적인 것」, 룽 윌슨, 위말 디싸나야케 편(김용규 역), 『글로벌/로컬: 문화 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에코리브르, 2019, 39쪽.

23) 김학훈, 앞의 글.

성장 등의 주제도 지역학에서 많이 다루어졌다.”²⁴⁾ 또한 사회학 진영에서는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를 인간생태학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내의 다층적인 사회적 변화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변동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²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역학 또는 지역연구는 마치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기의를 부여할 수 있는 ‘텅 빈 기표’처럼 부유하면서 매우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학문적 정체성과 방법론을 규정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학계에 지역학이 부상하던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다.²⁶⁾ 영문연의 영남학은 바로 이러한 글로벌 시대의 정치경제적·문화적 지형 하에서 출범하게 된다. 지식생산은 그것이 수행되는 시대적 상황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문연의 영남학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문화지형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없다.

III. 지역학의 공간성과 영남학

영남학은 영남이라는 지역을 단위로 구축되는 지식체계이다. 따라서 영남학은 영남을 일정한 지리적·공간적·행정적 경계를 가진 지역 혹은 지방으로 개념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영문연이 영남을 지역으로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는 연구원 창립 15주년 기념 기획논문 중 한 편에서 잘 드러난다. 영남은 경상도 지역의 별칭으로 “소백산맥의 조령과 죽령 등 큰 고개의 남쪽 지방”을 지칭하고, “그 공간적 범위는 통칭 경상도 지역으

24) 김학훈, 앞의 글, 89쪽.

25) 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 2014, 164쪽.

26) 이중희,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국제지역연구』 5(3), 2001, 3-27쪽;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신서, 1997; 김경일,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신서, 1997; 전경수, 「지역연구의 방법을 위한 인식기초」,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신서, 1997.

로서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위시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괄하고 있다.”²⁷⁾ 여기서 영남이라는 지역은 지리적 경계와 행정구역으로 특정되는 명백한 공간적 실체로 개념화되고 있다. 당연히 영문연의 연구대상인 영남문화는 바로 이 공간적 실체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어떤 것으로 정의된다. 영남과 영남문화의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연구원의 창립 당시 이루어진 개념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구원의 창립멤버였던 권연웅 교수는 영남과 영남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남문화란 무엇인가? 영남문화란 쉽게 말해서 영남지방의 문화이다. 영남지방은 물론 경상도를 말하며, ... 영남문화란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영남지방의 여러 지역의 향토문화로 구성된다.”²⁸⁾

놀랍게도 20년 전 창립 당시의 개념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문연의 연구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영남이라는 지역과 영남문화라는 연구대상의 공간적·행정적 개념화를 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어 왔다는 뜻이 된다. 영문연이 이렇게 공간적·행정적 단위와 문화적 단위를 등식화해서 영남과 영남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초창기 인류학에서 지배적이었던 모자이크형 문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초창기 인류학자들은 특정한 지리적·공간적 경계 내에서 생활하는 한 인구집단의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고유한 생활양식의 총체를 문화로 보았다. 따라서 세계는 각각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뚜렷한 경계를 가진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집합으로 이미지화되고, 지도상에 선으로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이들 문화집단을 하나씩 고유한 색으로 채워나가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자이크 같은 세계지도가 완성된다.²⁹⁾ 이와 같은 ‘문화적 모자이크’³⁰⁾는 인류학계 내부의 치열한

27) 우인수, 앞의 글, 39쪽.

28) 권연웅, 앞의 글, 2쪽.

29) Hannerz, Ulf, *Transnational Connections: Culture, People, Places*. London: Routledge, 1996, 4-5쪽; Lewellen, Ted C.,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Enters the 21st Century*. Westport and London: Bergin & Garvey, 2002, 50쪽.

이론적 논쟁을 통해 건설적으로 지양된 지 이미 오래다. 1960-70년대 탈식민주의 인류학자들은 문화적 모자이크가 특정한 장소를 절대적인 공간적 실체로 간주하는 물리적 공간론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인 비서구문화를 폐쇄적이고 몰역사적인 실체로 재현함으로써 서구중심적 세계관과 문명-야만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 논박했다.

영문연의 연구자들이 영남학의 연구대상인 '영남'이라는 지역을 분명한 경계를 가진 공간적 장소로서 개념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영문연의 영남학이 영남지역을 영남문화를 담고 있는 일종의 공간적 컨테이너로 개념화함으로써 영남문화를 영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가두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즉 영남이라는 공간적 영역을 경계로 영남문화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 공간적 영역이 다른 모든 수준의 공간적 영역보다 영남지역 사람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규정한다는 명시적·묵시적 가정 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영남이라는 장소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남이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물질적·상징적 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글로벌 수준의 세계, 아시아,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지방, 도시, 아파트단지, 마을, 이웃공동체 같이 다양한 수준의 공간적 영역들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물질적·상징적 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얹히고설켜서 만들어내는 매우 카오스적인 중력장 속에서 살아간다.

최근 학계에서 부상해온 비판적 공간이론과 문화이론에 따르면 영문연의 영남학이 준거로 삼고 있는 영남이라는 지역은 물리적인 공간적 실체가 아니고, 그 공간에 겹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영남문화 또한

30) 여기서 문화적 모자이크는 북미 학계의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널리 주창되었던 '문화적 모자이크'(cultural mosaic)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의 문화적 모자이크는 한 사회 내에 상이한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종족집단(ethnic group)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물론 이 개념 또한 초창기 인류학의 모자이크형 문화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론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개념으로 비판받고 있다.

분명한 경계를 가진 자명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지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을 인지하는 주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매우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 전통적인 공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는 공간이 고정되고 주어져 있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공간적 장소는 사회적 과정의 조건임과 동시에 결과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과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장소의 흔적을 담고 있는 만큼 장소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르페브르는 지역, 지방, 국민국가, 로컬리티의 구축 그리고 이들 공간적 단위를 의미 있고 독특한 장소로 만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의 형성과 해체는 사회적 과정과 흐름의 함수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공간을 이렇게 보면 지역학의 연구대상을 정의하는 일이 안정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도 항상 세계를 계측하고 구획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정치적 가정 및 권력관계 그리고 심지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³²⁾ 따라서 영문연이 영남지역과 영남문화를 개념화할 때 기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통적 공간론은 지구화시대 글로벌 문화지형 하에서 전개되는 경계넘기, 경계허물기, 경계만들기를 추동하는 흐름과 네트워크를 포착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글로벌 시대의 영남 사람들은 지역의 경계 안과 밖을 동시에 살고 있고, 영남의 문화는 영남이라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영남이라는 지역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 공간론을 고수함으로써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비단

31)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Publishing, 1991.

32) Smith, Neil, 앞의 글, 35쪽; Castelles, Manuel,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4쪽; 또한 Gupta, A. and J. Ferguson, "Culture, Power, Place: Ethnography at the End of an Era,"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을 보라.

영남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지역학 일반이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보여준다. 지리학자 박배균은 한국 지역학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지역의 공간적 이미지화가 노정하는 문제를 “방법론적 영역주의”와 “본질주의적 장소론”이라는 개념 하에서 비판하고 있다.

많은 지방학 연구들이 국가의 행정적 영역을 주어진 것으로 절대시하면서 연구 대상을 정하고 분석의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론적 영역주의(methodological territorialism)’에 쉽사리 포섭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의 범위나 사건이 규정되고 관계가 벌어지는 공간적 스케일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과정을 통해 물질적 혹은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학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제도화된 행정적 영역을 바탕으로 정함에 따라, 정작 더 중요한 장소의 일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여러 행정, 정치적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³³⁾

행정적 혹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도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여러 도시와 지역의 장소성을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탐구하는 연구들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장소의 의미와 장소를 둘러싼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공간과학 혹은 실증주의적 공간연구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측면에서 지역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장소성의 탐구를 중시하는 이러한 지역연구들은 장소라는 것이 본래부터 그곳에서 뿌리내려져서 주어지고, 지속되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본질주의적 장소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복잡한 권력관계와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투쟁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³⁴⁾

인류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닐 스미스(Neil Smith)는 기존 지역학의 방법론적 영역주의와 본질주의적 장소관이 수반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33)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1호, 2012, 41쪽.

34) 박배균, 「한국 지역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지역연구의 대안 모색」,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327쪽.

해 지역과 장소의 단순한 공간적 이미지화 대신 “공간적 스케일”(spacial scale)이라는 개념을 통해 글로벌 시대 지역학의 이론적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공간적 스케일은 사회적 과정의 흐름 속에서 창출되고 변형된다. 그것은 주기적이지만 다소간 지속되는 사회적 과정의 고정성을 공간적 형태로 재현한다. 공간적 스케일은 감지가능한 존재를 가지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은 다시 사회적 흐름을 조직하는 데 기여한다. 공간적 스케일은 공간적 차별화와 동의어가 아니다. 공간적 스케일의 생산 그 자체가 인식가능하게 차이나는 장소들 사이에 경계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케일의 생산은 장소들을 상호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거틀, 즉 공간적 차이들을 조직하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스케일의 생산은 경관 내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경계들을 그리는 척도(metric)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간적 스케일의 생산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역사를 기간, 시기, 시대 등으로 개념적·실천적으로 구분하는 과정만큼이나 정치적이다. 어떤 종류의 공간적 경계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가라는 문제는 어떤 사회적 사건이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표시하는가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정치적이기도 하다.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공간적 스케일은 사회적 투쟁의 결과이고 스케일의 생산은 사회적 경합의 장소를 표시한다. 스케일은 경합하는 사회적 힘들의 영토적인 해결을 재현한다. … 스케일의 생산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경관 내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고정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스케일은 그 자체로 매우 가변적이다. 응결되어 하나의 구체적인 스케일을 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기능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 자체가 ‘재스케일’된다. 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와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스케일이나 스케일들에서 작동할 수 있다.³⁵⁾

스미스가 주장하는 공간적 스케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최근의 새로운 공간이론들은 영문언의 전통적 공간론을 건설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를 더 이상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문화지형 하에서 전개되는 물질적·상징적 과정과 흐름을 포착

35) Smith, 앞의 글, 31쪽.

하기에는 영문연의 연구자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전제하는 전통적 공간론과 장소론이 개념적·이론적으로 너무 평면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지구화시대에는 글로벌 수준에서 작동하는 힘들에 대한 고려 없이 로컬을 논할 수 없고, 글로벌 수준의 힘들은 오직 로컬의 수준에서 구현되면서 마치 프랙털 집합 같은 비선형적 문화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유로 국내 지역학 연구소 중 일부는 지역학의 새로운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왔는데, 한 예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로컬리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HK사업을 통해 ‘로컬리티 총서’와 ‘로컬리티 번역총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로컬리티(locality)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지역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글로벌-로컬과 중앙-지방 이분법을 넘어서는 지적 상상력을 부산지역 연구에 담아내고자 시도해왔다.³⁶⁾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이론과 방법론 지향적인 논의에 너무 편향된 연구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영문연이 누적해온 로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례연구와 로컬 자료발굴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영문연의 영남학은 지역학을 표방하면서도 지역학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론적·방법론적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문연의 영남학이 영남지역과 문화에 관해 펼쳐내는 지식과 주장들은 의도치 않게 글로벌-로컬과 중앙-지방 이분법 그리고 글로벌 권력과 글로벌 담론을 직간접으로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의 결여가 지속되는 한 영문연의 영남학은 스미스가 말하는 “글로벌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거울 이미지”³⁷⁾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학과 관련된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논의의 부족은 비단 영문연의 영남학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비록

36) 홍성민, 「문화, 로컬리티, 주체형성-21세기 인문학의 방향모색」, 『로컬리티 인문학』 6, 2011, 275-307쪽.

37) Smith, 앞의 글, 35쪽.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남학 관련 연구소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기도 하다.³⁸⁾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영문연의 연구자들을 넘어 영남학 일반의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화는 거시적인 글로벌 수준의 힘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미시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됨과 동시에, 개별 국민국가들 내 다양한 스케일의 로컬 수준에서 문화적 역동성과 정체성의 재구축을 전례 없이 중요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도 전개되는 역설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정이다.³⁹⁾ 그렇다고 해서 영문연의 연구자들이 지구화시대 글로벌 문화지형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구화의 급변하는 상징적·물질적 질서가 영남인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영문연의 연구활동을 통해 영남의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글로벌 문화지형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진지하고 엄밀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쟁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실천적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담론수준의 공허한 지적 유희로 끝나버릴 수 있다. 지구화의 심화로 인해 이제 글로벌 수준의 힘과 흐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로컬—그것이 국민국가이든, 한 도시이든, 한 지역이든, 한 농촌 마을이든 간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문연이 영남학의 공간성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모자이크형 문화론과 물리적 공간론을 지양하려는 이론적·방법론적 시도를 하지 않는 한 “지역에서 세계로” 혹은

38) 이창언, 「대구경북 지역연구의 동향과 과제」, 『인천학 연구』 8, 2008, 93-115쪽.

39) 립 윌슨·위말 디싸나야케, 「서문: 글로벌/로컬 추적하기」, 립 윌슨·위말 디싸나야케 (편)(김용규 역), 『글로벌/로컬-문화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예코리브르, 2019, 14쪽; 립 윌슨·위말 디싸나야케(편)(김용규 역), 『글로벌/로컬-문화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예코리브르, 2019.

40) 예를 들어 정우락, 「중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영남학』, 제30호, 2016, 1-25쪽; 조정현, 「중가 문화유산의 구심적 가치 보존과 원심적 활용 방안」, 『영남학』 제30호, 2016, 101-127쪽 등이 있다.

“가장 영남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영문연의 모토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글로벌 문화지형이 영남인들의 물질적·상징적 삶을 프리즘처럼 굴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영남 지역연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지역학의 총체성과 영남학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학제적, 다학문적, 혹은 요셋말로 ‘융합적’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지역학 연구소로서 영문연은 출범 당시부터 영남지방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연구원의 창립 당시 권연웅 교수는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성패”가 바로 영남지역의 “총체적 삶”을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남학은 영남인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일로서, 한국학의 일부이며 영남지역 향토학의 집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남학은 결코 과거 지향적이 될 수 없다. 영남학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립하는 일이며, 현재의 뿌리인 과거와 현재의 연장인 미래도 연구하고 전망해야 한다. 또 영남학은 ‘총체적인 삶’을 연구하기 때문에, 문학, 예술, 사상 등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영남학은 이렇게 포괄적인 시간적, 공간적, 학제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영남학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⁴¹⁾

문학자인 조동일 교수 또한 『영남학』 창간호에 실린 글에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문학적 관점에서 역설하고 있다: “문학을 그

41) 권연웅, 앞의 글, 6쪽.

자체로서 고립시켜 폐쇄되는 잘못을 시정하고 널리 개방시켜, 다른 학문의 관심사와 광범위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지방문학에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⁴²⁾ 이렇게 영문연은 출범 당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영남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방법론적 지향을 분명히 세웠다.

그렇다면 그동안 영문연의 영남학은 출범 당시의 학제적·총체론적 지향에 얼마나 충실한 연구를 해왔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출판된 영문연의 간행물을 ‘이론/방법’, ‘인물’, ‘사상/학파’, ‘민속/종교’, ‘언어/문학’, ‘문헌/서지’, ‘역사/고고’, ‘당대이슈’, ‘정책/응용’ 등 9가지 주제별 항목으로 분류해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⁴³⁾

<표 1> 『영남학』 게재 논문의 주제별 분류(제1호~제70호)

주제 호수(편수)	이론 /방법	인물	사상 /학파	민속 /종교	언어 /문학	문헌 /서지	역사 /고고	당대 이슈	정책/ 응용	기 타	비 고
70(11)		3	1	1		4	1	1			
69(8)		3	1		1	1	2				
68(9)		3			1		3	1	1		
67(9)		2	1		3		2	1			
66(11)		4	3		1	2	1				
65(8)		1	1	1		1	4				
64(11)		3		1	1	2	3			1	
63(12)		4			4		2		1	1	
62(12)		3	1	1		2	5				

42) 조동일, 앞의 글, 53쪽.

43) 물론 이 표에 제시된 주제별 범주들은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물의 제목과 내용이 여러 범주에 걸쳐 있어서 딱히 한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배적인 주제 하나를 선택해서 분류했다. 그리고 9개 항목 중 어느 것으로도 분류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했다. 전체적으로 이 분석은 출판물의 제목과 전반적인 내용의 일별을 통해 매우 느슨하게 이루어진 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도 느슨한 분석만으로도 그동안 영문연의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들이 보여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글로벌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박충환)

61(10)			1			4	3		2		
60(10) ⁴⁴⁾		3	1		1	2	1		1	1	
31(10)		4	2		1		2		1		
30(8)				1		1	3		3		
29(11)			1			2	2			6	
28(13)		6	1	1	1	1			3		
27(10)		1				4	2		3		
26(15)		8	1			2	4				
25(14)		7	1			1	5				
24(13)		4		2	2		5				
23(7)		6			1						
22(9)		7		1		1					
21(11)		1	1		3	4			1	1	
20(9)					1	1	6		1		
19(10)		1		3	1		4		1		
18(12)		3		1		3	5				
17(13)	1	2		1		2	6		1		
16(15)	²⁴⁵⁾	5				4	4				
15(13)	²⁴⁶⁾	2		1		1	7				
14(16)		5			1	1	1		7	1	
13(13)		1			3		9				
12(7)	1		1		2	2				1	
11(10)		5		4			1				
10(12)		1		1		10					
9(10)	¹⁴⁷⁾	3				6					
8(8)		2				4	1		1		
7(9)				2	1	1	3	1	1		
6(7)							3		4		
5(10)									10		
4(7)					2	2	1	2			
3(8)		1			1	6					
2(6)						6					
1(10)	4			1	1	1	3				
합계(437)	11	104	18	23	33	84	104	6	42	12	

<표 2> 영남문화연구원 간행 저역서 주제별 분류(2003년~2018년)

주제 년도(책수)	이론/ 방법	인물	사상/ 학파	민속/ 종교	문학/ 언어	문헌자료 /번역	역사/ 고고	정책/ 응용	종가문화
2018(7)						2			5
2017(8)						1		1	6
2016(7)								1	6
2015(5)						3		2	
2014(11)						3			8
2013(19)						3			16
2011(8)									8
2010(9)						5	1		3
2009(3)						1	1	1	
2008(3)						1		2	
2007(1)						1			
2006(3)						2		1	
2004(3)						1		2	
2003(1)						1			
합계(78)						24	2	10	42

이 분석은 지난 20년 동안 영문연의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들이 연구원 창립 당시 표방했던 학제적·총체적 방법론에 거의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영문연의 영남학은 학제적·총체적 접근의 결여로 인해 영남문화의 지극히 일부만을 매우 편향적으로 재현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문연 영남학의 편향성 문제는 이미 황위주 교수가 연구원의 15년간 학술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추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과제의 부족, 외부 의뢰에 편승한 수동적인 연구 편중, 연구대상 선정의 엄정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⁴⁸⁾라는 평가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 편향성의 문제는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원의 관련 연구자 대부분이 공감

44) 『퇴계학』과 통합 이후 권호수 체계 바뀜.

45) 자료정리 및 목록 작성 방법

46) 주석방법

47) 고문서 정리방법

48) 황위주, 앞의 글, 7-8쪽.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구편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수반하는 이론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함의에 대한 천착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영문연 영남학의 총체성 부족과 편향성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굳이 날카로운 분석적 시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포착될 정도로 뚜렷한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연구자들의 분과학문 소속이 특히 역사와 문학 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기술적 성격의 인문학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사회과학적 연구 혹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는 인류학자가 쓴 논문 2-3편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 물론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사업을 통해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2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인간과 문화”가 그 한 예이다. 하지만 이 기획은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면서 지속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후 2007년 한국연구재단 HK사업에 선정된 과제 “영남지역 고문서 아카이브 구축과 계층별 생활사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학제적 성격의 종합적 연구를 시도했으나, 불운하게도 제도적 불협화음으로 단 3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영문연은 비록 진지한 시도는 있었지만 체계적인 학제적 접근을 통해 영남문화의 총체성을 일부라도 재현해 내는 데는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과학문 소속의 연구자들 사이에 분과학문의 편협성을 넘어서는 학술적 교류나 대화의 장을 제공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둘째, 시간적 축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영남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현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표 1>에서 제시된 『영남학』 70호까지 실린 전체 논문 437편 중 ‘이론/방법’, ‘당대이슈’, ‘정책/응용’, ‘기타’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366편은 모두 과거에 관한 연구로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정책/응용’으로 분류된 논문들도 예를 들어 14호에 실린 7편이 과거의 생활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로서 대부분 과거의 내용을 다루고 있

다.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연구의 과거 편향성은 훨씬 더 뚜렷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거 편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영문언의 관련 연구자들이 대부분 특정 인문학 계열 분과학문에 소속되어 있고, 개별 연구분야도 대체로 과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심화로 급변하고 있는 영남문화와 영남인들의 현재적 삶은 영문언 영남학의 지적 지평에서 대부분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세 번째 편향성은 연구의 주제 면에서 관찰되는 불균형이다. 주제 상의 편중이 특히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는 영남의 인물에 관한 연구이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 논문이 104편으로 24%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다. 실제로는 ‘사상/학파’에 해당되는 연구들도 많은 부분 인물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고, ‘문헌/서지’와 ‘역사/고고’에도 특정 인물 혹은 인물들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를 모두 인물연구에 포함시키면 수치는 적어도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문언의 연구결과물 중 어림잡아 절반은 인물에 관한 연구가 되어 상당한 편중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인물을 주제로 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가 학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물연구 또한 영남문화의 총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당연히 그 자체로서도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구의 절반이 특정한 인물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현상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영남학은 계급·계층적 측면에서도 편향성을 보여준다. 영남학에 게재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과거의 지배층과 지배문화를 조명하는 연구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연구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학술활동이 지배층과 상류층의 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에 선정되어 한문으로 된 문집, 문헌, 서한을 국역하는 과제를 장기간 수행해오고 있다. 이 또한 영남인의 생활세계를 읽어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발굴, 정리, 축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 번역사업을 통해 번역 출간되는 자료는 대부분 과거의 지배층이 남긴 문헌 자료들로서 지배층의 삶과 세계관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연구원의 학술활동이 대부분 문자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자료도 대부분 텍스트 자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편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과거 문자해독능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지배층과 상류층의 문화가 ‘과대재현’(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연구원이 조직하는 시민강좌나 대외강연도 유교문화 같이 대부분 과거 지배층의 문화에 관한 것이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작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영남문화 중에서도 유독 지배층의 문화인 종가문화에 관한 간행물이 많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이에 명백한 이유가 있다. 연구원이 2008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경상북도 종가문화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경북의 종가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사업 방안”과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이라는 제목의 정책과제를 수행했고, 2015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 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라는 제목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배층의 문자문화와 종가문화가 마치 영남지역에 특유하고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특성이라는 인상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영남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과거 문헌자료가 유독 많이 남아 있고, 종가 관련 종족조직과 친족 관련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⁹⁾ 이는 현재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는가에 따라 학문적·실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살아있는 문화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사실이 문헌자료와 종가문화가 영남문화를 대표한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49) 심지어 연구원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있는가라는 문제는 판단하는 자의 사회적 ‘위치성’(positionality)에 따라 다름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남학의 계급 편향성은 지식의 탈정치성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앞서 논의한 서구 지역학의 서구중심주의적 타문화 재현은 로컬의 정치현상을 ‘문화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제국과 식민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관통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간과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과 모순을 은폐하고 서구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받는다. 안타깝게도 영문연이 영남문화를 재현하는 방식은 과거 구미 지역학이 비서구문화를 재현하는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는 특히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의 부재로 영남 사람들의 현재적 삶을 관통하는 정치경제적 문제와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현실에서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주로 인문학의 개별기술적 접근을 하는 인문학자들이 텍스트, 그것도 과거의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데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 주로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 지배층 학자나 문사들의 철학, 사상, 문학, 생애에 편중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정치적 차원이 거의 삭제되어버린 채로 영남문화가 재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록 누구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학제적 종합을 통해 영남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영문연의 초기 기획은 간 데 없고, 전통적인 분과학문의 틀에 갇힌 연구, 그것도 지극히 소수의 학문분과에만 치중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영남문화를 매우 지엽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재현해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영문연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영남이라는 로컬에 대한 학제적·총체적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편적 문제의식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하고, 영남문화를 연구의 주제가 아닌 대상으로 물상화시켜 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영문연의 연구활동은 “학제적 종합을 추구하지만 결국 분과학문의 편협성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지역학의 한계”⁵⁰⁾를 고스란히 영남이라

50) 노명환,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일상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집 1호, 1999, 9쪽.

는 로컬에서 재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남학은 영남문화와 영남 지역민들의 삶의 총체를 관통하는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구조와 힘의 네트워크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지식이 되지 못하고 아직은 단지 일부 분과학문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개별 연구성과물들의 집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영남학이 축적해온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증가연구를 통해 강조될 수 있는 가족주의, 종족주의, 공동체주의는 지구화시대 자본의 보편적 통제와 비인간적 경제주의의 만연에 대한 균열과 저항이라는 실천적 가치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편향성으로 인해 증가연구는 과거 영남문화의 파편 중 하나로 박제화되어 버릴 수도 있다. 또한 증가연구의 결실이 증가라는 영남의 일부 친족집단이 지역사회,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치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권력관계를 로컬 수준에서 재생산하는 매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으로 포섭되어 버릴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장태문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장태문화에 내재하는 전일적 세계관을 강조한다면 단순히 이러한 세계관의 본질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것이 지구적 수준의 보편적 가치, 예를 들어 최근 구미 학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의 핵심축인 생태주의 및 환경주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남이라는 로컬 수준에서 작동하는 전일적 세계관이 실제 로컬 수준의 정치경제와 어떻게 맞물려서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로컬 수준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특수한 정치경제적·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지구적 수준의 환경주의 담론이 왜 로컬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문화로 환원시키고 정치경

제적 차원을 무시해버린다면 실천성과 보편성이 부족한 매우 추상적이고 공허한 담론수준의 지식생산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캐나다의 인류학자 에드아르도 콘(Eduardo Kohn)⁵¹⁾은 아마존 원주민의 삶이라는 지극히 미시적이고 로컬적인 것을 글로벌 세계로 가져와 서구의 모더니티와 인간중심주의적 지식이 직면해 있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인류세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른바 지식의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turn)을 이끌고 있다. 그는 아마존에서 관찰되는 인간과 숲과 나무와 동물들 사이의 대화를 단순히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애니미즘의 한 형태로 환원하거나 본질화하지 않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에 입각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숲과 나무와 동물 등 모든 비인간 생명체들도 나름의 기호체계를 통해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들만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지성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콘의 연구가 갖는 의의가 무엇이든 이 맥락에서 중요한 교훈은 그가 지극히 로컬적인 것을 로컬에 가두지 않고 글로벌화함으로써 이전의 글로벌(서구적 모더니티와 휴머니즘)을 로컬로 전환시켜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연의 영남학이 제대로 된 총체적 접근을 통해 ‘통합과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분과학문을 가로지르는 상호참조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영남학』에 게재된 논문들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분과학문의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학계나 구미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관련 사례연구나 이론적 논쟁을 참조하기 위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논문을 본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한국학이 한국의 언어와 역사뿐만 아니라 이주, 통일, 도시성 등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51) 에드아르도 콘(차은정 역), 『숲은 생각한다』, 사월의 책, 2018.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⁵²⁾ 영문연의 문학과 역사 편향적인 연구와 분과학문의 편협한 틀에 갇힌 연구활동은 이러한 국제 한국학과의 학술적 교류는 물론이고 그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나갈 가능성도 닫아버리게 된다.

여기서 나는 단순히 형해화된 학제적 연구 혹은 융합적 접근을 시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학제적 연구는 흔히 특정한 학문분과의 미지수가 다른 여러 학문분과의 불확실성에 의해 배가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종의 모험”⁵³⁾이다. 실제로 한국의 학계에서는 90년대 말에 이러한 모험이 실패로 끝나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⁵⁴⁾ 그리고 최근 대학가에서 맹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융합연구의 광풍에 가까운 유행을 목도하면서 이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가 복기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미 지역학계에서 진행된 학제적 연구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토론들은 분명히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사회적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틀이 훨씬 더 정밀해졌고 지식의 지평 또한 넓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연에는 이를 둘러싼 체계적이고 진지한 논쟁과 토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영남학』에는 영남의 현재와 오늘을 살아가는 영남인들의 사회적 삶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거의 게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독려하는 목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단순히 여러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물리적으로 하나의 학술지에 끌어 모은다고 저절로 학제적·총체적 연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리적 병치는 분과학문에 갇힌 연구자들의 ‘자기들만의 말잔치’로 인해 학술적 화음이 아닌 잡음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

52) 정진현,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2016, 271-287쪽.

53) 마셜 살린스(박충환 역), 『석기시대 경제학』, 한울, 2014, 93쪽.

54) 우리는 여기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한다는 명분 하에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무리하게 학부제를 시행했다가 단 2년 만에 다시 이전의 학과 단위로 되돌아갔던 쓰라린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다. 당연히 많은 연구자들이 분과학문의 벽을 넘어 가깝거나 먼 이웃 분과학문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인용하고 종합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영남학』에 논문을 게재하는 인문학 계열 연구자들 중 사회과학적 연구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인문학 분과학문의 성과를 자신의 연구에 끌어와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연구자가 몇이나 될까?

사실 필자의 이런 문제제기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 20년 전 연구원 창립 당시 이미 권연웅 교수가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의 학문풍토는 소위 전문화를 위하여 한 연구분야를 쪼개고 또 쪼개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 사이에는 학문적인 교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극소수의 전문가를 위한 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가 맥락을 상실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지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영남문화의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으나, 분야별로 단편적인 사례 연구에 치중하고, 이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은 빈약했다. 아무리 분야별로 연구가 축적되어도, 영남문화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이런 결점을 극복하는 길은 물론 ‘종합적’ 연구이다. ... 영남문화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과 방법론이 필요하다.⁵⁵⁾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영문연 내에서는 권연웅 교수의 준엄한 목소리에 대한 반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 최근 구미학계의 최전선에서는 심지어 총체성의 추구 자체가 이미 낡아빠진 모더니티의 산물로 간주되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해석이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많은 의미를 버리는 문제”⁵⁶⁾이고, 인간 언어와 인지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현상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확보하는 일은 애초부터 인식론적 자기모순이자 실현 불가능한 지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지역학은 특정 문화의 총체적 재현이라는 인식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적을 포기하고, 인류학자 메

55) 권연웅, 앞의 글, 7-8쪽.

56) 메릴린 스트래선(차은정 역), 『부분적인 연결들』, 오월의 봄, 2019, 54쪽.

틸린 스트래선이 말하는 현상 세계의 “부분적 연결”⁵⁷⁾에 대한 기술과 해명으로 나아가야 최소한의 학문적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체적 지식의 불가능성이 반드시 총체적 지식의 추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최종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성계는 바로 지성의 이러한 본질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식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해왔다.

V. 지역학의 인식론과 영남학

영문연의 영남학은 자문화연구 지역학으로서 관련 연구자들이 대부분 한국과 영남의 문화적 내부자로서 자신의 문화를 연구한다. 타문화를 연구하든 자문화를 연구하든 지역학은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복잡한 인식론적 문제를 수반한다. 현상에 대한 얇은 얇은 주체가 그 현상과 일정한 인식론적 거리를 확보할 때 펼쳐지는 지적 지평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너무 가까우면 마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 현상은 익숙함에 매몰되어 인식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너무 멀면 현상이 인식주체의 상상력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얇은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타문화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속해 있는 문화와 연구 대상인 타문화 사이에 기본적인 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론적 거리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확보된다. 하지만 연구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적 우주에 매몰되어 연구대상을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주로 서구의 백인

57) 같은 책.

남성 학자들이 비서구 사회의 문화를 연구했던 초창기 지역학은 서구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백인우월주의, 남성중심주의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인류학에서는 이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연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적 우주에서 벗어나 연구대상 문화를 그 고유한 역사적·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를 강조해왔다. 반면 자문화연구의 경우 타문화연구와 대조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의식적으로 인식론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인류학에서는 이렇게 연구자가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것을 ‘낯설게 보기’라 한다. 낯설게 보기는 연구자가 자신이 속해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문화를 기술, 분석, 해석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인식론적 위치설정이다.

그렇다면 타문화연구자는 문화상대주의에 충실하고 자문화연구자는 낯설게 보기에 충실하면 지역학을 관통하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가 해소되어 버리는 것일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타문화연구자의 문화상대주의와 자문화연구자의 낯설게 보기 양자 모두 연구자가 자신의 문화적 우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문화연구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 내에 계층, 계급, 젠더, 연령, 종교, 지역에 따른 수많은 하위문화들이 존재하고, 연구자가 그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타문화연구가 수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민족중심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문화를 연구하더라도 낯설게 보기와 문화상대주의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를 오가며 일종의 문화적 번역자(cultural interpreter) 역할을 해온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인식론적 난제를 일찍부터 경험해왔고, 이를 ‘에믹’(emic)과 ‘에틱’(etic)의 구분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에믹과 에틱은 언어학에서 이루어진 음운론(phonemics)과 음성학(phonetics)의 이론적 구분에 입각해서 개념화된 용어이다. 음성학은 인간이 발성하는 모든 소리에 관한 연구이고, 음운론은 특정한 언어 내에서 의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의 변별적 단위, 즉 음운

(phoneme, 혹은 ‘음소’라 부르기도 한다)에 관한 연구이다. 음성학은 연구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모든 종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통해 언어 일반을 설명하고, 음운론은 음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발화자의 의식·무의식적 모델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언어를 분석한다. 따라서 음성학은 언어적 보편성에 관한 연구이고 음운학은 언어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가 된다. 인류학은 이러한 언어학적 음운론과 음성학의 구분을 문화연구의 맥락으로 가져와 에믹은 원주민의 관점 혹은 내부자의 관점을 뜻하는 개념으로, 에틱은 분석적 관점 혹은 외부자의 관점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⁵⁸⁾ 에믹과 에틱의 이러한 구분은 또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성과 보편성, 개별기술과 법칙정립, 로컬과 글로벌이라는 인식론적 이항대립과 대체로 겹쳐지기도 한다.

<표 3> 에믹과 에틱

에믹(emic)	에틱(etic)
내부자의 관점	외부자의 관점
특수성	보편성
개별기술	법칙정립
로컬	글로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주의해야 할 것은 에믹과 에틱의 구분을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두 차원은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만 구분가능한 일종의 개념적 이념형이다. 따라서 문화연구자는 에믹과 에틱이라는 인식론적 양극단 사이를 오가며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두 관점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문화를 재현해야 한다.

영문연의 영남학은 이러한 인식론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영

58) Goodenough, W. H.,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1970, 112-113쪽; Harris, Marvin,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mic/etic distin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5, 1976, pp. 329-350.

문연의 영남학이 영남문화를 재현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낯설게 보기와 문화상대주의에 비유될 수 있는 인식론적 고민을 해왔을까? 안타깝게도 지역학적 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의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영문연의 영남학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쟁과 토론을 전혀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문연 영남학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인식론적 고민의 부재는 앞서 논의한 연구의 계급·계층 편향성과 맞물려 지배계급 중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초창기 서구 지역학이 노정했던 서구중심주의가 영남학에서는 계급·계층 중심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남학은 한국학 일반이 노정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비판적 성찰 없이 그대로 범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전체를 하나의 문화적 단위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한국학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조선연구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띤 국학으로 출발”했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정체성 확립과 국가지배이데올로기 생산에 대한 필요”⁵⁹⁾에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한국의 여러 지방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은 지구화가 심화시킨 서울중심성에 대한 대항담론과 지역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분석단위가 어느 수준에 있든 한국학 일반은 서양학문과 동양학문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거해서 주로 동양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적 관점, 즉 에믹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재현될 수 있다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한국학은 국내의 로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에믹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만족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문연의 영남학은 유독 이러한 에믹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영남이라는 지역과 한국이라는 국민국가를 초월한 수준의 지성계와 분리

59) 박배균, 앞의 글(2012), 38쪽.

되어 자기들만의 말잔치를 펼치고 있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영문연의 영남학이 던지는 질문은 지극히 로컬적이고, 글로벌 수준의 학문적 쟁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매우 국지적인 영역의 문제의식에 갇혀 있게 된다. 그 이유는 “한 지역의 본질은 세계라는 전체와 그 지역이라는 부분의 상호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⁶⁰⁾되어야 해명될 수 있는 지적 지평인데, 영문연의 영남학은 그러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문연 내적으로도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 이를 반영한 연구결과물이 생산되는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앞서 논의했듯이 모든 종류의 지역학은 “시행 초기부터 지역구속적 또는 문화구속적이라는 특수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⁶¹⁾ 하지만 지역학은 이러한 특수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그 특수성을 보편성과 연결시켜야 한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특수라는 현상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논리이며, 그 반대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이 보편과 특수 관계임을 상정할 때, 지역연구가 지향하는 특수성의 구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시에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의 이해라는 보편적인 질문과 어느 특정지역의 삶의 이해라는 특수한 질문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집적하에서 전자의 질문이 해답으로 향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⁶²⁾

안동대학교 임재해 교수는 이러한 논리를 민속학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한국민속은 지역민속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지역민속은 다른 지

60) 노명환, 「지역학과 역사학」,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연구회(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 출판부, 1995, 117쪽.

61) 전경수, 앞의 글, 40쪽.

62) 전경수, 앞의 글, 40-41쪽.

역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독자적 특성을 온전하게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속과 한국민속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지역민속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국민속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민속학이 진전되어야 지역민속학도 발전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는 부분과 전체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지역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분과학문의 장벽을 가로지르는 노마디즘의 경향이나, 여러 분과학문을 두루 수렴하는 통섭 학문의 경향은 지역연구와 같은 좁은 범위나 특정 분과학문의 영역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역연구는 지역연구이면서 한국연구이자 세계연구여야 한다. ... 영남 지역 민속연구는 영남지역학이면서 한국학이자 아시아학이며 세계학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임재해 교수가 이끌어온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가 지역학 연구소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인식론적 고민을 실제 연구에서 최대한 담아내려고 시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영문연의 영남학은 이러한 인식론적 고민의 부재로 인해 보편과 특수, 변증법적 승수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문연의 영남학은 영남문화의 본질에 대한 즉자적 재현에 그치고 있다. 최소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법칙정립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시대에 의미 있는 주제의식에 입각한 대자적 재현은 시도해야 그 깊이와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좀 더 학술적·실천적으로 유효한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문연 영남학의 인식론적 고민 결여는 지역학적 지식생산이 권력관계와 맞물려 의미심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한다. 강신표 교수는 『영남학』 창간호에 실린 글에서 지역학적 지식의 정치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즉 그는 역사학자 이상훈을 인용하면서 “한국 사회 같이 모든 것이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지방 담론이 갖는 억압적 의미를 주목하고, 지방과 중앙의 이분 구도 속에서 은폐된 권력구조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 지방사 연구는 지역사회의 삶과 무관한 언어유희에 빠질 위험”⁶⁴⁾이 있

63) 임재해, 앞의 글, 145-146쪽.

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영문연의 영남학은 지식-권력 관계에 대한 관심조차 이 지점에서 끝이 난다. 그 후 20년 동안 어떠한 연구물에도 이러한 영남학의 지식-권력 관계에 대한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영문연은 지역학의 이러한 지식-권력적 성격을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처음 설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⁶⁵⁾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 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해온 것 같다.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이 태생적으로 정책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지적 토대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관련 연구자들이 자신의 생산하는 지식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 대한 자의식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남문화의 어떤 부분을 어떤 주제의식 하에서 재현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배제할 것인가는 정책입안자의 정책결정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비판적 성찰 없이 무작위적으로 생산해낸 지적 산물은 결국 기존의 부조리한 권력관계와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I. 결론

이상에서 영문연의 영남학을 지역학 일반의 이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쟁점과 연결시켜 조명해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영문연의 영남학은 지역학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마술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영문연이 영남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이론적 가정과 방법론적 관행들에 대해 의식하고 이를 뛰어넘으려는 시

64) 강신표, 앞의 글, 112쪽.

65) 강신표, 앞의 글, 113쪽.

도를 촉발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권연웅 교수의 표현대로 영남학은 “죽은 문화의 사체를 부검하는 일”⁶⁶⁾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롭 윌슨과 위말 디싸나야케는 그것이 지역으로 불리든 지방으로 불리든 글로벌 시대의 “로컬은 대안적 상상력의 틈새적 공간, 즉 국민국가와 초강대국의 지배적 공간을 해체하려는 삶과 기억의 대안적 양식”⁶⁷⁾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 로컬주의”(critical localism)를 선언하고 있다. 인류학자 아파두라이는 이를 “아래로부터의 지구화”(globalization from below)⁶⁸⁾라 부른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넓은 공동체주의, 패권적 민족주의, 형해화된 역사주의에 대한 낭만적 향수를 경계”⁶⁹⁾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현재를 과거 속에 감금하고”⁷⁰⁾ 억압과 불평등을 문화다양성의 화려함 속에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에서 30년 만에 재실행된 지방자치는 영문연의 영남학 같은 지역학이 출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토양을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방분권이 결여된 반쪽짜리 지방자치였고 현재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들은 대부분 죽어가고 있다. 문화예술기획자 김상수의 주장대로 지역학이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100개의 학(學)”을 일으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영문연의 영남학은 당연히 이들 100개의 학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의는 “국가통치체제의 분권적 전환을 통한 ‘특화된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주민거버넌스 모형’의 주민자치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연대적 공존, 생활 민주주의의 일상화, 그리고 특성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⁷¹⁾ 그렇다면 영

66) 권연웅, 앞의 글, 23쪽.

67) 롱 윌슨·위말 디싸나야케, 앞의 글, 17쪽.

68) Appadurai, Arjun, “Grassroots Globalization and the Research Imagination,” *Public Culture* 12(1), 2000, 3쪽.

69) 롱 윌슨·위말 디싸나야케, 앞의 글, 19쪽.

70) 롱 윌슨·위말 디싸나야케, 앞의 글.

71) 김영정, 앞의 글, 180-181쪽.

문연의 영남학은 지금 당장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누적된 종가문화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영남지역의 문중조직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문연의 종가연구는 과거의 박제화된 파편이길 멈추고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특색의 “주민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영남문화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표방하며 형제화된 영남문화의 세계화를 역설한다면, 영문연의 영남학은 로컬적인 것을 활용해서 글로벌 수준에 적응하려는 ‘글로벌에 대한 추구’(quest for the global)에 불과하거나 장소 마케팅을 통해 영남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려는 시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영남은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만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메마른 기호로 환원되어 버리게 된다. 글로벌 세계에서 각 국가들이 국격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고충빌딩을 경쟁적으로 세우듯이 영남은 글로벌 무대의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어필해야 한다. 영남학의 지식생산은 글로벌의 특권적인 지식 패러다임을 재생산하는 데 공헌해서도 안 되지만 영남문화를 국지주의적이거나 본질주의적으로 재현하는 편협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역학을 “추악한 신조어”(ugly neologism)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⁷²⁾ 지역학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봉사하는 정책과학으로서 출현하고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영문연의 영남학이 지역학의 추악한 신조어 중 하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때에 행하는 무엇”⁷³⁾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남학은 한국의 전통적 지배층과 지배이데올로기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미화하거나 강조하고 결국 뒤튼린 현재 체제의 재생산에 봉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

72) Said, Edward, *Orientalism*, Pantheon Books, 1978.

73) 메릴린 스트레션, 앞의 책, 59쪽.

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영문연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온 업적과 성과를 일관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영문연의 학술적 업적을 폄훼하거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실천적 중요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문연이 축적해온 학술적 성과물들은 앞으로 영남학과 영남지역이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적·문화적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영문연의 영남학이 이 수준에서 만족하거나 지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다소 불편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영문연 영남학이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학술적 행보를 냉철한 시각으로 평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글이 영문연 영남학의 새로운 행보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지적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에는 아마 필자의 짧은 공부로 지나친 일반화나 자료의 잘못된 해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신표, 「영남문화 연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영남학』 1호, 2001, 109-180쪽.
- 권연웅, 「영남문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영남학』 제1호, 2001, 1-24쪽.
- 김경일(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 김경일,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5(3), 1996, 223-266쪽.
- 김경일,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 1997, 45-88쪽.
- 김경일,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1998, 17-49쪽.
- 김상수, 「100개의 학을 일으켜라, 살아있는 지역학-(김상수 칼럼) 지역학의 네 트워크 구축과 실천을 제안하며」, 『프레스리안』 2008년 8월 28일.
- 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 2014, 163-199쪽.
- 김학훈,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2014, 87-103쪽.
- 노명환, 「지역학과 역사학」,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연구회(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 출판부, 1995.
- 노명환,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일상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집 1호, 1999, 3-30쪽.
- 롭 윌슨·위탈 디싸나야케(편)(김용규 역), 『글로벌/로컬-문화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에코리브르, 2019.
- 롭 윌슨·위탈 디싸나야케, 「서문: 글로벌/로컬 추적하기」, 롭 윌슨·위탈 디싸나야케(편), 김용규(역)(2019), 『글로벌/로컬-문화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에코리브르, 2019, 7-34쪽.
- 마셜 살린스(박충환 역), 『석기시대 경제학』, 한울, 2014.
- 메릴린 스트래선(차은정 역), 『부분적인 연결들』, 오월의 봄, 2019.
- 박배균, 「한국 지역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지역연구의 대안 모색」,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326-331쪽.
-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

- 리학회지』 제47권 1호, 2012, 37-59쪽.
- 박성봉, 「한국문화사와 영남 문화론 서설」, 『영남학』 제1호, 2001, 25-51쪽.
- 아리프 딜릭, 「로컬적인 것 속의 글로벌적인 것」, 룽 월슨, 위말 디싸나야케 편 (김용규 역), 『글로벌/로컬: 문화 생산과 초국적 상상계』, 에코리브르, 2019, 37-72쪽.
- 안귀남, 「경상북도 방언 연구의 현 단계와 상주 방언의 특징」, 『영남학』 제29호, 2016, 227-284쪽.
- 에드아르도 콘(차은정 역), 『숲은 생각한다』, 사월의 책, 2018.
- 우인수, 「영남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제29호, 2016, 37-69쪽.
- 이상원, 「영남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29호, 2016, 71-139쪽.
- 이중희,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국제지역연구』 5(3), 2001, 3-27쪽.
- 이창언, 「대구경북 지역연구의 동향과 과제」, 『인천학 연구』 8, 2008, 93-115쪽.
- 임재해, 「영남지역 민속연구의 현단계와 바람직한 미래 구상」, 『영남학』 제29호, 2016, 142-185쪽.
- 전경수, 「지역연구의 방법을 위한 인식기초」,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신서, 1997, 34-44쪽.
- 정우락,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영남학』, 제30호, 2016, 1-25쪽.
- 정진현,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2016, 271-287쪽.
- 조기숙,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집, 1998, 7-34쪽.
- 조동일, 「영남문학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 『영남학』 제1호, 2001, 53-76쪽.
- 조정현, 「종가 문화유산의 구심적 가치 보존과 원심적 활용 방안」, 『영남학』 제30호, 2016, 101-127쪽.
-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신서, 1997.
- 한기문, 「상주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제29호, 2016, 187-225쪽.
- 홍성민, 「문화, 로컬리티, 주체형성-21세기 인문학의 방향모색」, 『로컬리티 인문학』 6, 2011, 275-307쪽.
- 황성우,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지역’ 개념에 대한 단상」, 『Russia & Russian Federation』 1(1), 2010, 36-40쪽.
- 황위주, 「영남문화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전망-영남문화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 『영남학』 제29호, 2016, 7-36쪽.

- Appadurai, Arjun,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Theory, Culture and Society* 7, 1990, pp. 295-310.
- Appadurai, Arjun, "Grassroots Globalization and the Research Imagination," *Public Culture* 12(1), 2000, pp. 1-29.
-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Benedict, Ruth,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Houghton Mifflin, 1946.
- Castelles, Manuel,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Friedman, Jonathan, *Cultural Identity and Global Proces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 Goodenough, W. H.,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1970.
- Gupta, A. and J. Ferguson, "Culture, Power, Place: Ethnography at the End of an Era,"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 Hannerz, Ulf, *Transnational Connections: Culture, People, Places*. London: Routledge, 1996.
- Harris, Marvin,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mic/etic distin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5, 1976, pp. 329-350.
- Inda, Jonathan X. and Renato Rosaldo, "Introduction: A World in Motion", in Jonathan X. Inda and Renato Rosaldo (eds.),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 Reader*, Blackwell Publishing, 2002, pp. 1-36.
- Katzenstein, Peter J., "Area and Region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4), 2001, pp. 789-791.
- Khosrowjah, Hossein, "A Brief History of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Arab Studies Quarterly* 33, 2011, pp. 131- 142.

-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Publishing, 1991.
- Lewellen, Ted C.,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Enters the 21st Century*. Westport and London: Bergin & Garvey, 2002.
- Ludden, David, "Area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vol. 6, 2000, pp. 1-22.
- Robertson, Roland,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 -Heterogeneity," in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and Roland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pp. 25-44.
- Said, Edward, *Orientalism*, Pantheon Books, 1978.
-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Smith, Neil, "Remapping Area Knowledge: Beyond Global/Local," in Terence Wesley-Smith and Jon Goss(eds), *Remaking Area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across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p. 24-40.
- Szanton, David L.(ed.), "Introduction: the origin, nature, and challenges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in David Szanton(ed),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인터넷 자료

http://ynculture.knu.ac.kr/bbs/content.php?co_id=intro02

http://ynculture.knu.ac.kr/bbs/content.php?co_id=intro02

http://m.pressian.com/m/m_article/?no=90618

Abstract

Glocal Cultural Landscape and the Position of Youngnamhak as an Area Study

Park, Choong-hwan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there has been a boom of domestic area studies whose domain of analysis corresponds to various administrative units of Korean society. This article aims at critically examining *Youngnamhak*(*Youngnam* Studies) condu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Youngnam* Culture(RIYC) in the context of the glocal cultural landscape of globalization and the theoretical, methodological, epistemological issues polemic in area studies in general. For this, it analyzes 78 volumes of book published by RIYC, maj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RIYC, and 437 pieces of article published in *Youngnamhak*, the academic journal issued by RIYC. And then it illuminate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analysis in terms of spaciality, holism, and epistemology of area studies in general.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Firstly, Yougnam area studies conducted by RIYC has more or less failed in properly representing the lives of people in Youngnam area due to its lack of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cerns on the changing spatiality of area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condly, Youngnam area studies conducted by RIYC have represented only a few facets of Youngnam culture in academically biased ways because it has not

actually practiced the interdisciplinary and holistic approaches that RIYC proclaime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wenty years ago. Finally, due to its lack of concerns on the epistemological issues of knowledge production in area studies and its rather exclusive emphasis on insiders' point of view, RIYC's Youngnam area studies have been intellectually very parochial, seriously isolated from the global academic and practical issues. Based on this critical review, this article tries to offer an intellectual jumping board for a new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RIYC soon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keywords :

glocal cultural landscape, *Youngnamhak*, area studies, spatiality, holism, epistemology